

# 저렴해진 DDR4 메모리 구매 적기인가

### D램 가격 반년새 반토막 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가 하반기 가격 심하게 요동칠 듯 ... 내년엔 회복세 전망

“저렴해진 DDR4 메모리, 지금 사는 것이 적기일까?”

지난 2017년 10월 8GB 기준 DDR4의 기준 가격이 13만9500원까지 올랐던 RAM 가격은 이후 꾸준히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6일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DDR4 8GB RAM의 지난해 1월 평균 구매가는 8만700원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5만7100원으로 떨어졌다. 1년 사이 3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이달 초에는 3만9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최근에는 배송비를 제외하면 2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역대 최저가 수준이다.

해외 언론에서도 D램 가격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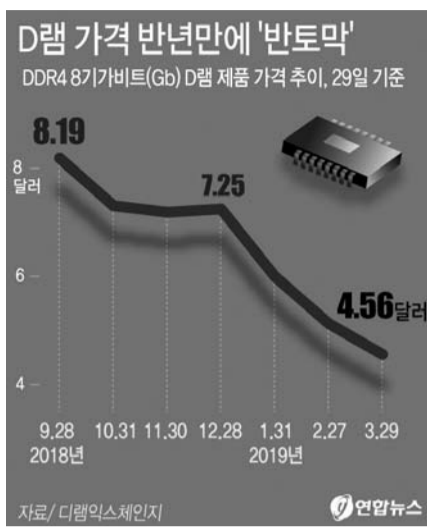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메모리 전문 시장조사기관

인 디램익스체인지는 10%로 예상했던 3분기 D램 가격 하락 폭을 최근 10~15%로 조정했다. 이어 4분기 또한 하락 폭이 최대 10%에 이를 것으로 보고 기준 전망(2~5%)을 수정했다.

디램익스체인지는 미국의 대중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서버 제품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D램 성수기인 하반기에도 수요가 예상치를 밑돌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D램의 재고가 많다는 점도 가격 하락에 주된 이유다.

앞서 투자업계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2분기 D램 수요가 바닥을 통과, 3분기부터 가격이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D램 가격(DDR4 8Gb 기준)은 5개월째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며 최근



4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디램익스체인지는 “통상같듯이 격화하면서 하반기 D램 가격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하게 요동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년에는 D램 가격이 반등하면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

다.

가격이 더떨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메모리를 장만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음달 AMD에서 신규 프로세서가 출시되고 이에 따라 메인보드를 비롯한 CPU 관련 부품도 새롭게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메모리를 구입해 추후 PC 업그레이드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메모리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당장 메모리 가격을 살펴볼때 지금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새로운 세대의 CPU와 기존의 DDR4 보다 데이터 전송속도는 1.6배 빠르고 전력 소비량도 30%가량 줄인 DDR5도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새롭게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연합뉴스

## 지구 위협 소행성 2개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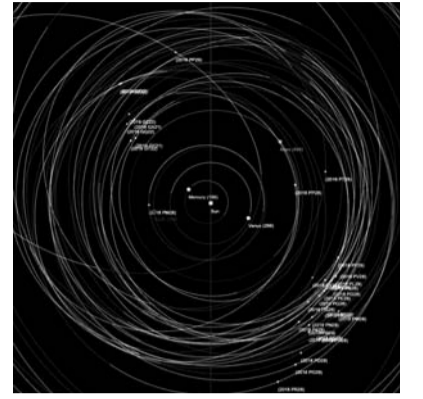
### 2063년 지구와 충돌 확률 28억분의 1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지구 공전궤도 근처를 지날 수 있는 궤도를 가진 소행성 2개를 발견했다. 이 중 하나는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지구위협소행성’(PHA)으로 분류됐다. 국내 연구진이 지구위협소행성은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행성의 지구충돌 확률은 28억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해 8월 칠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측소에서 운영하는 지름 1.6m급 외계행성 탐색시스템(KMTNet) 망원경 3기로 이들 소행성을 찾았다고 밝혔다. 천문원은 궤도 운동을 추적해 정밀궤도를 얻는 데 성공했다. 두 소행성은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MPC)에서 각각 ‘2018 PM28’(PM28), ‘2018 PP29’(PP29)라는 임시번호를 받았다.

PM28의 지름은 20~40m 정도로 추정된다. 44일간 궤도운동을 추적한 결과 이 천체는 궤도운동 중 태양까지의 최소거리(근일점 거리)가 1.3AU(약 1억9500만km)보다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천문연맹 소행성센터는



한국천문연구원이 발견한 소행성 궤도.

이런 소행성을 근지구소행성(NEA)으로 분류한다.

지구와 비슷한 궤도로 공전하는 게 이 소행성의 특이한 점이다. 근지구소행성의 궤도는 대부분 긴 타원형이고, 궤도 평면은 지구 공전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 소행성은 앞으로 100년간 지구와 충돌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PP29 소행성의 경우 2063년과 2069년 각각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충돌 확률은 28억분의 1에 불과하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방탄소년단을 데뷔시켜라” BTS 월드 게임 출시

### 넷마블, 176개국에 출시 이용자가 매니저 돼서 BTS 성장시키는 육성 게임

“내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직원이라고?! 방탄소년단의 데뷔는 내손에 달렸다”

넷마블(대표 권영식)은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 ‘BTS월드(BTS WORLD, 개발사 테이크원컴퍼니)’를 26일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글로벌 176개국에 정식 출시(일부 국가 제외)했다고 밝혔다.

BTS월드는 이용자가 방탄소년단의 매니저가 되는 스토리텔링형 육성 모바일 게임이다. 방탄소년단 데뷔 전 시점으로 돌아가 RM(리더),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뷁, 정국을 모아 이들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스토리를 메인 콘텐츠로 제공한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직접 매니저가 돼서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이용자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해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BTS월드는 1만여장의 사진과 100여편의 영상 등 다양한 독점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 SNS, 음성 및 영상



통화 등 이용자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일대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감 콘텐츠도 제공한다. 멤버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담긴 ‘방탄소년단’ 카드’를 수집 및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넷마블은 이용자가 BTS월드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웹 게임 형태의 미니게임을 사전등록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게임 사전등록과 함께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방탄소년단 멤버를 확인하는 짝꿍테스트도 할 수 있다.

넷마블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

월드 정식 출시 전까지 방탄소년단이 직접 부른 게임의 독점 OST를 ‘진’, ‘지민’, ‘정국’이 참여한 유닛 곡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사전등록 공식 사이트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OST에 대한 티저를 공개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백두산 천지 화산분화 징후 대비 남북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해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두산 천지에서 관측되는 화산분화 징후에 대비해 남북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두산 화산연구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관·학 콘퍼런스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관·이상민 의원의실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교섭화와 지질자원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분화할지에 대한 예측 결과를 공유하고 남북 간 연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질자원원에 따르면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를 보유한 활화산이다.

실제 1000여년 전인 946년 천지에서는 이른바 밀레니엄 대분화가 일어났다.

당시 남반 전체를 1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분출물을 쏟아 낸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다.

과거 1만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이다.

최근 들어 이런 화산분화 움직임은 잇따라 관측되고 있다. 화산지진, 가스, 지각변형 등이 그 사례다.

2002~2005년 사이에 천지 근방에서는 화산지진이 3000여 회 이상 일어나거나, 천지 인근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연구 내용은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자세히 소개됐다.

지난달에는 영국에서 열린 한·영 리서치 콘퍼런스에 김혁 북한 지진청 분과장이 참석해 “백두산 땅속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손영관 경상대 교수, 윤성호 부산대 교수, 이현우 서울대 교수, 이윤수 포항공대 교수 등이 백두산 화산분화와 관련한 그간의 연구 데이터를 소개했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의 ‘남북공동연구 민간채널 추진을 통한 북한 측 현황과 사정’ 등 발표도 이어졌다. /연합뉴스

#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